

난 멈추지 않는다 ⑦ 나무위의 피터팬, 미즈노 마사유키

# “트리하우스는 동경 아닌 ‘꿈’ 아이들에 고향 같은 집 선물”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는 어린이날이 필요 없다. 찾는 사람 누구나 소년이 되는 느티나무 집(트리 하우스) 때문이다. 200여년 마을을 지켜온 당산나무는 미즈노 마사유키(50) 씨의 손길을 타고 마을 명소가 됐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살아있는 액자로 사계절을 내려다본다. 5년 전 미즈노 씨가 나무 위에 창문을 달고 지붕도 얹은 덕분이다. 도시에서 분투하던 중년의 가장이 '대동리 피터팬'이 된 사연을 듣기 위해 어린이날 다음날인 지난 6일 그의 집을 찾았다.



### ◆돈이 곧 행복인 줄 알았다

“다음에 올 때는 달라질 거예요!” 드림캐피를 만들던 미즈노 씨는 집을 나서며 방문객의 기억 언저리에 인사말을 새겼다. 이 집의 가훈은 ‘우리집은 항상 공사중. 행복도 성공도 공사중’이다. 대문 역할을 하는 트리 하우스와 긴 마당을 사이에 둔 주택. 미즈노 씨에게 이 공간은 살아 움직이는 땅, 네버랜드다.

미즈노 씨의 행복 공사는 그의 인생이 대한해협의 파도처럼 수차례 철썩인 뒤에야 시작됐다. 훗카 이도 샷포로가 고향인 그는 1993년 같은 종교를 가진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경기도 광주에서 5년 동안 살았다. 1998년 다시 찾은 고국 땅은 외환위기에 직면한 한국처럼 사정이 안 좋았다.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캐드(CAD) 자격증을 따 중견 건축업체에 들어갔다.

남들처럼 은행 대출로 아파트를 장만하고 매일 야근했다. 아내와의 대화는 끊기고, 아이들의 얼굴도 볼 수 없게 됐다. “그런데 돈은 생기니까,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입사 2년 뒤인 2000년 봄, 도망갔던 피터팬의 그림자가 창문을 두드렸다. “창문 너머 길가에 민들레가 피어있었어요. 그때 알았죠. ‘봄이 왔었구나.’ 흰 나비가 날아와 왔더군요. 어린 시절 고향에서 쫓아다니던 그 나비가.”

그때 만일 회사 밖을 나가 민들레를 바라보았다면 부장이 화를 냈을지도 모른다. 뒤통수가 저릿했다.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목줄이 있구나. 이렇게 살기 싫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 ◆후쿠 선장 같고리같은 세상

하지만 쌓아둔 재산은 커녕 그럴싸한 사업 계획도 없었다. 하루하루 무거운 넥타이를 목에 두르던 어느날, 병원에서 결핵 판정을 받았다.

병을 이유로 해고당한 그의 자존심은 후쿠 선장의 같고리 같은 현실에 무참히 찢겨졌다. 신기루 같은 인맥은 명함과 함께 사라졌다. 아이는 둘, 아내는 우울증. 본인도 폐인이 되었다. 장모님은 병으로 돌아가셨다. 미즈노 씨 가족은 경기도 수원에서 분식집을 하던 장모님의 집에 도망치듯 달려왔다. 삶에 대한 의욕이 꺾였다.



트리 하우스는 사방에 뻗은 나뭇가지와 조화를 이룬다. 방바닥에서 뻗어나온 가지가 창문과 지붕을 지탱하고 있다(위). 마당에서 바라본 트리 하우스(왼쪽). /이범중 기자

“더이상 잃을 게 없었을 때 ‘만들기’ 생각  
2004년부터 버려진 물건으로 집 꾸며  
트리하우스 다큐 찍으며 반년만에 완성  
현재는 지역명물·체험학습장으로 등록

재개발을 앞두고 관리되지 않는 아파트 4층에 집을 품 뒤에는, 온 가족이 목숨을 끊자는 이야기도 오갔다. 온 나라가 월드컵의 열기에 들썩이던 2002년 여름이었다.

“죽음을 가리키는 한국말에 ‘돌아가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 나는 여기서 죽으면 돌아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멋지게 살고 싶고 하고픈 일도 많았는데, 나, 이대로는 못 죽는다.”

아내를 부둥켜안고 눈물 흘린 미즈노 씨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끝내기로 했다.

### ◆동경 아닌 꿈을 꾸면, 기회가 온다

“생각보다 꿈과 동경을 헛갈리기 쉬워요. 그런데 저는 그때 꿈이 ‘만들기’라고 느꼈어요. 옛날의 나였으면 참고 돈 모아서 나중에 하자고 했겠지만, 이젠 더 잃을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마음먹자, 일이 풀리기 시작했다. 2003년 일본 애완동물 업체의 한국 주재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다. 2004년에는 장모님이 살던 김제 집으로 갔다. 버려진 물건들로 집을 꾸며다. 사람들의 시



선은 잇은 지 오래였다.

미즈노 씨의 존재를 알게 된 프로덕션은 그를 일본 담당 코디로 불렀다. 2011년 11월, 도쿄 출장길에 오른 미즈노 씨는 잊고 지낸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했다. “카사(CASA)라는 건축 잡지의 트리 하우스 특집이 서점에 있었어요. 샀습니다.” 2009년 이사한 집 앞의 당산나무가 달리 보였다.

동경과 꿈의 갈림길에서 미즈노 씨는 40대 가장이라는 ‘객관적인 나’를 마주했다.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2년 뒤, 함께 일하는 PD가 ‘인간에게 만들거란 무엇일까’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다. 잡지에서 읽은 트리 하우스의 대가, 고바야시 타카시가 떠올랐다.

그때 PD가 입을 열었다. ‘일본에서 나무 위에 짓는 사람이 있는데, 섭외해 주세요.’

꿈만 같던 고바야시 씨와의 만남에서 현재를 즐기는 그의 모습을 마주했다. 이후 방송은 나무집 만들기로 가닥이 잡혔다. 2013년 여름에 시작된 트리 하우스 건설은 반 년 만에 마무리됐다. 어른들은 마을 회관이 생긴 뒤 방치된 당산나무를 돌봐 온 그를 응원해주었다.

이후 ‘미즈노씨네 트리하우스’는 지역 명물이 됐다. 감탄을 내뱉으며 나무에 오르는 누구나 텅커벨이 된다. 피터팬이 된다.

### ◆“나의 꿈은 웃음 가득 네버랜드”

나무집은 어쩌서 동경이 아닌 꿈이라는 확신이 들었을까. 미즈노 씨는 ‘뿌리’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동경은 한번 자르면 안 자라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럴 때가 있었어’ 하죠. 뿌리가 있어 계속 자라면 꿈인데,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믿어야 해요. 그럼 운이 다가옵니다.”

그의 꿈을 현실로 이끌어준 이들은 웬디와 다섯 아이들이다. 피터팬을 사랑하는 웬디의 마음으로, 그의 아내는 잃어버린 꿈의 그림자를 발에 꿰매 주었다.

지금 미즈노 씨네 집은 체험학습장으로 등록돼 있다. 닭장에는 닭들이, 부화기엔 계란과 메추리알이 있다. 거실은 카페로, 남는 방 한 칸은 사랑방으로 쓴다.

“저는 아파트 세대여서, 고향집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거실 바닥 상처에 사연이 없고, 벽에 그려진 키도 없지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집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작고 오래되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집.”

그의 바람대로, 아이들은 네버랜드가 자랑거리다. 대학생인 첫째와 둘째는 이달 연휴에 각각 친구 10여명을 데려왔다고 해,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젊었을 때 꿈은 ‘세계 평화’였는데, 살다 보니 그 조건은 가정의 평화였어요. 이 집은 저와 같아요. 집을 계속 만지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가족 사랑을 보듬기 위해서지요. 제 꿈은 계속 내 방식대로 이 집을 꾸며가는 삶이랍니다.”

/김제(전북)=이범중 기자 jcker@metroseoul.co.kr

## “매주 토요일, 숲속 작은 음악회 열어요”

### 내일부터 ‘양재시민의숲 봄 음악 소풍’

서울시 동부공원복지사업소는 오는 12일부터 양재 시민의숲에서 숲속 작은 음악회 ‘2018 양재시민의숲 봄 음악 소풍’을 개최한다.

음악 소풍은 울창한 숲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젊은 뮤지션들의 연주로 진행된다. 오는 12일에는 ‘연어 초밥’과 ‘신길역로망스’, 19일에는 ‘베니 줄리’와 ‘뮤립’, 다음 달 2일에는 ‘피그말리온’, ‘크림파스타’, 9일에는 ‘프렌드양’과 ‘국밥’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공연장 한 칸에서는 천연방향제 만들기, 손글씨 쓰기 등의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음악 소풍은 사전예약 없이 공연을 이용하는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동부공원복지사업소 공원여과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재 시민의숲 봄 음악 소풍 모습. /서울시

이용태 서울시 동부공원복지사업소장은 “시민의숲은 울창한 숲이 있어 편안한 휴식같은 공원”이라며 “5월과 6월 주말에는 시민의숲에서 가족, 친구, 연인들과 감성 충만한 시간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 5년간 공공도서관 30개 확충

### 도서관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서울시립도서관이 5개 권역별로 확충된다. 서울시 최초의 ‘시립장애인도서관’도 세워진다. 향후 5년간 40개의 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통해 카페·사무실·작업실 같은 공간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먼저 시는 권역별 시립도서관과 구립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을 5년간 30개관 확충한다.

시립도서관 중 한 곳은 서울시 최초의 시립장애인도서관으로 조성한다.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모두를 고려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머지 도서관은 인문사회, 그림책, 가족, 창업비즈니스를 테마로 한 전문·특화 도서관으로 건립한다.



서정현 서울시 문화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도서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도서관의 공간 개선도 이뤄진다. 시는 매년 10개관을 선정해 ▲도시의 거실 ▲도시의 사무실 ▲메이커스페이스 ▲미디어센터 4개의 유형으로 도서관 공간을 재구성한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확대·강화한다. 시는 25개 자치구별로 ‘정보취

약계층 지원센터’를 세워 다문화가정,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한다.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125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증액해 보유 장서를 늘린다. 도서관별로 제작각인전자책 뷰어를 통일하는 전자책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기록물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인 ‘서울 아카이브’를 만들어 운영한다.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독서 동아리를 3000개로 늘리고 공유플랫폼 구축, 활동공유 축제 등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도서관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해 도서관 정책 수립에서부터 시행까지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ik1@